



Hana Market Weekly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4. 11. 11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

주간 달러/원 동향(11/4~11/8) 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미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크게 밑돌았으나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금투세 폐지 등의 소식이 원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은 하락 출발. 이어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강달러 흐름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미 대선 전 위험회피 분위기 속 상승 전환
- 중반, 예상보다 빠르게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자 글로벌 달러 강세에 연동되며 큰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1390원대 후반까지 상승
- 후반, 트럼프 당선 확정 소식이 강달러 압력이 커지며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고점 인식 속 매도물량 유입에 상승폭 축소됨. 이어 주 후반, 연준의 25bp 금리인하 등 11월 FOMC 결과가 예상에 부합한 측면과 빅이벤트 종료 후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을 반영하며 1380원대로 하락 마감

달러/원 전망

- 미국 소비심리 지표의 견조함 속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인사 기용 가능성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 선반영 영향이 달러 강세 흐름 지지할 것으로 예상
- 또한,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시장 실망감 등으로 위안화가 약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판단
- 반면, 1,400원대 근접에 따른 수출 관련 달러 매도 유입 가능성과 당국 경제심리 강화는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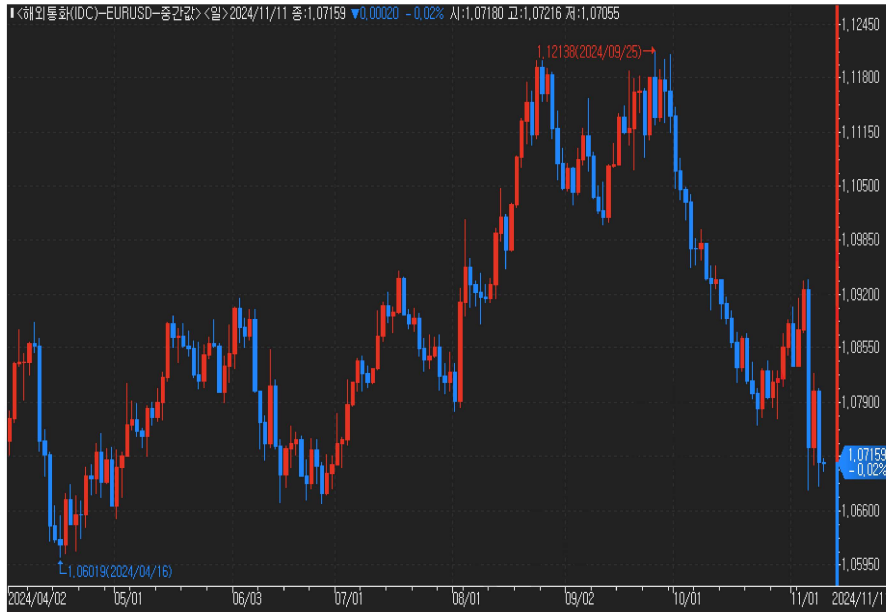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,377.0	1,404.5	1,368.6	1,386.4	+9.4

예상거래범위

1,380원 ~ 1,400원



엔·유로화 동향 (11/4~11/8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유로존과 독일의 10월 제조업 PMI가 전월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에 유로화는 강세로 출발. 이어 미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후보 지지율 상승 소식에 강달러 흐름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강세 흐름 지속
- 중반, 트럼프 당선 확정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와 관세 부과 정책 등 유로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속 유로화 가치가 급락
- 후반,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 달려 강세의 되돌림 나타난 가운데 유로화는 소폭 강세를 보임. 이어 주 후반, 독일 총리의 재무장관 해임 등 독일 연정 붕괴로 유럽 지역 불확실성 높아짐에 따라 약세 전환 후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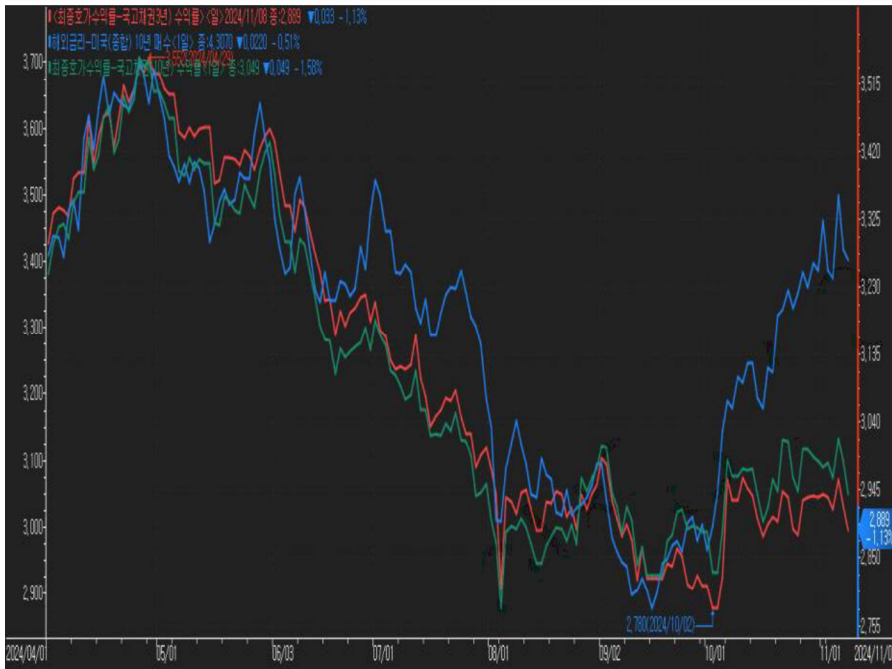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0834	1.0937	1.0683	1.0718	-0.0116

엔화 동향

- 주초, 미 대선 여론조사에서의 해리스 후보 약진에 미 국채수익률이 하락한 영향으로 엔화는 강세 출발. 이어 해리스 지지율 상승세 속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조정되는 가운데 강달러 완화되며 강세 지속
- 중반, 트럼프의 재집권 확정과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가능성에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엔화는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며 154엔대 진입
- 후반, 미 대선 결과가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강달러가 다소 진정되면서 약세 폭을 일부 되돌림. 이어 주 후반, 일본 외환당국 관계자들의 연이은 구두 개입성 발언에 소폭 강세를 보이며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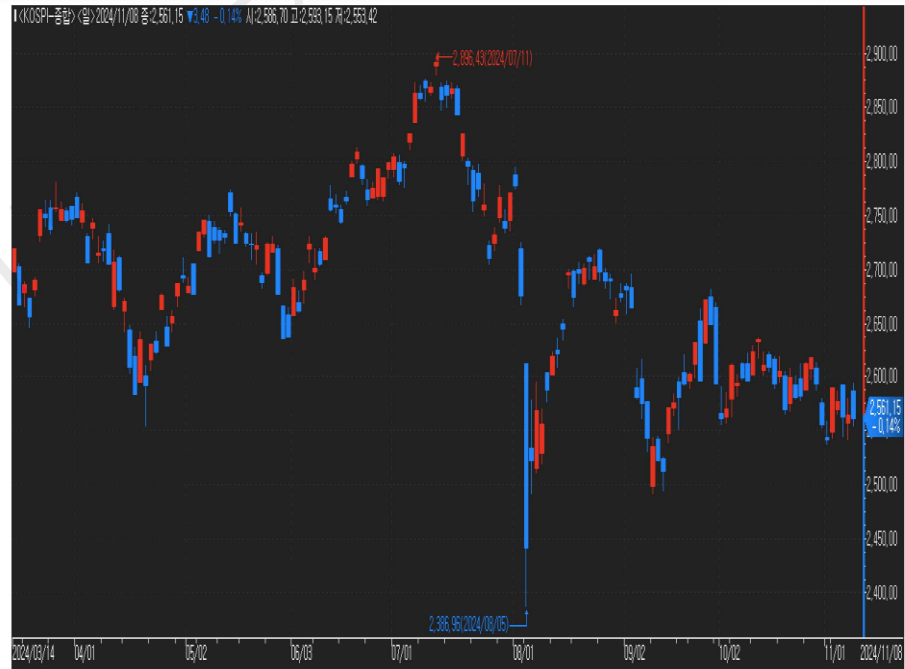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53.0	154.7	151.3	152.5	-0.5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11/4~11/8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10월 미 비농업 고용 증가 폭이 시장 예상을 대폭 밑돌면서 미 국채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나, 이내 대선을 앞둔 경계감으로 상승 전환 국고채금리는 이러한 미 국채금리 상승 전환에 연동하는 모습 시현 후, 수급상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보합 양상 시현. 이어, 미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 약진 흐름과 국내 10월 소비자물가의 1.3% 상승 서프라이즈 영향을 반영하며 하락 전환
- 중반 들어, 미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 가능성 속에 상하원 공화당 승기 소식 등에 따른 트럼프트레이드 영향 반영이 확대되며 국내외 금리들은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한 양상
- 후반 들어, 트럼프 후보의 재선 결과를 소화하는 가운데 미 대선 불확실성 해소 영향과 11월 FOMC 25bp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며 재차 국고채 금리 하락 후, 주 후반,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속에 11월 FOMC 금리 인하 결과를 반영하며 국고채금리 하락 추세 유지하며 마감



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감 속 상승폭 제한되며 출발했지만, 금투세 폐지 소식에 투자심리 개선되며 기관투자자 수급 유입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, 미 대선전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외국인, 기관투자자의 사전 정리 물량 공세 확대되며 하락 전환한 국면
- 중반 들어, 미 대선 개표 상황에 따라 코스피는 급등락 양상을 보인 후, 트럼프의 선거인단 확보 소식에 IRA법 혜택 축소 등을 우려한 영향 등이 반영되며 하락 양상 지속
- 후반 들어,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에도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트럼프트레이드를 딛고 소폭 반등한 후, FOMC와 중국 전인대 경기부양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에 강보합 전환 양상. 이어 주 후반, 11월 FOMC 금리인하 영향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, 중국 경기부양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속에 소폭 하락 추세 전환하며 마감